

특허정보 컨퍼런스 11월11일 COEX 개최

특허청은 11월 11-12일 COEX 장보고홀에서 <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 2008>을 개최한다.

행사는 특허 정보의 활용능력이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연구소의 특허경쟁력과 특허정보 활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적인 행사로, 2008년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정보 활용사례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례 발표와 더불어 선진 특허정보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.

컨퍼런스에서는 KAIST 서남표 총장의 <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 전략>에 대한 특강을 비롯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저명인사가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.

컨퍼런스와 함께 운영되는 전시회에서는 Thomson Reuters, LexisNexis, 세계지식재산권기구(WIPO) 등 11개 해외기업 및 웹스, 시리우스소프트웨어, 한국특허정보원을 포함 14개 국내기업 특허정보기관이 참여해 특허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등 관련 상품을 전시·시연하며 전시기업간 워크숍을 운영해 자율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8/11/10>